

다. 갈릴래아 민중에게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마르코복음에 나오는 민중과 루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민중은 차이가 있다. 그것은 마르코가 민중에 대해 사용한 ‘오클로스’라는 용어 대신 루가는 ‘라오스’(λαός)를 의식적으로 쓰고 있는 점에서이다. 마르코의 ‘오클로스’가 소속이 있는 민중이라면 루가의 ‘라오스’는 교회에 속한 민중으로 구약의 ‘하느님의 백성’과 유사하다.

루가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존중한다. 이 교회의 주인은 역시 갈릴래아 사람이라고 호소한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온 민중, 그들이 중심이 되어 온 땅 끝까지 하늘나라를 전파한다. 이것이 루가가 보는 교회론이다.

6. 맺는 말

지금까지 바울로의 케리그마와 마르코와 루가의 입장에서 민중과 교회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아마도 민중신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론의 범위일 것 같다. 또 이러한 연구들이 계속되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논문들이 발표되었으면 한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와 민중의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예수가 처했던 민중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또 바울로와 마르코가 고민했던 그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회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교회의 존립과 확장을 위해서 비역사적인 케리그마를 옹호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의 사실적 상황을 외칠 것인가? 나는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케리그마를 말해야 했던 그 입장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또 오늘날 우

리 교회가 양자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 둘이 긴장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교회를 비정치화시키고 복음의 순수성을 말하면서 특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묵인 내지 동의하는 것은 괜찮고,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의 입과 손발이 되어주는 것은 안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교회적인 것일까? 아무리 교회당이 있고 조직이 있어도 하느님의 뜻대로 민중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면 우리에게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적어도 목회자들은 늘 교회의 교회다움을 자각하고 고민하면서 설교해야 한다. 갑작스레 민중신학의 결론들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위한 교회가 참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리라고 본다.